

작품 내용

제 목	3,601번째 글자
내 용	내가 쓴 글을 처음 알아본 사람은 나보다 열두 살 많은 이모였다. 가족 단체 대화방에 이모가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연한 베이지색 배경에 검은 글씨가 가지런히 박힌, 흔히 ‘좋은 글’이라고 불리는 종류의 이미지였다. 맨 위에는 누렇게 익은 복숭아가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는 상처 난 복숭아부터 우리에게 먹였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상할 것을 먼저 사랑하기 위해서였다.’ 이모는 눈물 모양 그림을 세 개 붙였다. “요즘은 이런 글이 마음에 와닿네.” 나는 답장을 쓰지 못했다. 저 문장을 어디서 보았느냐고 묻기도 전에, 내 손가락은 이미 사진을 확대하고 있었다. 복숭아와 어머니에 관한 글은 내가 스물셋 여름에 쓴 산문이었다. 그해 어머니는 시장에서 한 상자에 오천 원짜리 복숭아를 사 왔다. 반쯤 물러진 것들만 골라 담은 딸이 상품이었다. 어머니는 멍든 부분을 칼로 도려낸 뒤, 멀쩡한 쪽을 내 접시에 놓아주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기억했다가 몇 해 뒤 인터넷에 글로 옮겼다. 글의 제목은 바뀌어 있었다. 문단은 절반으로 줄었고, 내가 붙인 썸표 몇 개도 사라졌다. 그런데도 알아볼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상할 것을 먼저 사랑한다’는 이상한 표현은 내가 사흘 동안 고치고 되돌리기를 반복한 문장이었다. 다른 사람에게는 문장 하나였지만, 내게는 여름 한철과 복숭아 세 상자와 어머니의 칼끝이 들어 있는 문장이었다. 사진 아래에는 출처가 없었다. 나는 이미지 검색을 시작했다. 같은 글은 생각보다 멀리 가 있었다. 어느 블로그에서는 ‘마음을 울리는 어느 딸의 고백’ 이었고, 다른 카페에서는 ‘작자 미상의 아름다운 글’ 이었다. 짧은 영상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과 함께 낭독되고 있었다. 영상의 조회 수는 이십만 회가 넘었다. 댓글에는 저마다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는 고백이 이어졌다. 그중 한 사람이 물었다.

“이 글을 쓰신 분이 누구인가요?”

영상 게시자는 이렇게 답했다.

“인터넷에 좋은 글로 많이 돌아다니는 글이라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나는 한참 동안 댓글창을 바라보았다.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칸이 바로 눈앞에 있었지만, 섣뜻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이 감동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것은 제 글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좋은 글에 자격표를 붙이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다.

글이 사랑받고 있는데 이름이 꼭 필요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은 아닐까.

스스로를 달래려던 그날 밤, 나는 원문을 찾아 오래된 계정에 접속했다. 게시물은 남아 있었다. 작성 날짜는 7년 전이었다. 본문을 내려 읽다가 글자 수 표시를 발견했다.

3,600자.

당시 이용하던 게시판은 한 게시물에 3,600자까지만 입력할 수 있었다. 나는 분량을 맞추려고 문장을 여러 번 줄였다. ‘어머니가 칼로 복숭아의 상처를 도려냈다’ 에서 ‘칼로’ 를 빼고, 여름날 부엌의 냄새를 묘사한 문장도 하나 지웠다. 그렇게 본문을 정확히 3,600자에 맞춘 뒤, 다음 줄에 이름을 적었다.

내 이름의 첫 글자는 3,601번째 글자였다.

누군가 글을 옮기면서 입력창에 들어가는 부분까지만 복사한 모양이었다. 그는 내 이름을 일부러 지우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인지 확인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악의가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더 서늘했다. 한 사람을 지우는 데에는 거창한 도둑질도, 날카로운 가위도 필요하지 않았다. 글자 수를 알리는 작은 경고창과 ‘등록’ 버튼 하나면 충분했다.

그 뒤로 글은 복사될 때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어떤 사람은 읽기 어렵다며 문단을 나누었고, 어떤 사람은 더 감동적으로 보이도록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마침내 한 게시물에는 유명 작가의 이름까지 붙었다. 내 글은 이름을 잃고 떠돌다가, 나보다 유명한 부모를 새로 얻은 셈이었다.

나는 게시자들에게 원작자임을 알리는 메시지를 보냈다. 대부분은 답하지 않았다. 한 사람은 출처를 수정하겠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물었다.

“좋은 글을 많은 분과 나눈 건데, 문제가 되나요?”

그 질문 앞에서 나는 쉽게 화를 낼 수 없었다.

내 휴대전화에도 출처 없는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누군가 찍은 노을 사진, 이름을 모르는 시인의 문장, 어느 만화에서 잘라낸 장면, 만든 사람을 확인하지 않은 채 친구에게 보낸 그림. 나는 그것들을 훔쳤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마음에 들어서 저장했고, 함께 보고 싶어서 보냈을 뿐이었다.

내 글을 옮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제야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검은 옷을 입은 도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좋은 것을 나누고 싶다는 선한 얼굴로 찾아왔다. 출처를 확인하는 몇 분이 귀찮아서, 이름쯤 없어도 뜻은 전해진다고 믿으면서.

며칠 뒤, 친구가 짧은 산문 한 편을 보내왔다.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글이었다. 공유 버튼을 누르자 글자 수를 초과했다는 안내가 떴다.

나는 습관처럼 맨 아래부터 지우려 했다. 그곳에는 글쓴이의 이름과 글이 실린 책의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것들을 지우면 본문은 한 줄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었다.

손가락을 멈췄다.

대신 내가 덧붙인 감상 두 줄을 지웠다. 본문의 마지막 문장도 전부 옮기지 않고 중간에 말줄임표를 붙였다. 그리고 남은 자리에 작가의 이름과 출처를 적었다.

공유된 글은 조금 짧아졌지만, 글쓴이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나는 알았다. 이름은 글이 끝난 뒤 남는 자리에 붙이는 장식이 아니었다. 누군가 그 글을 쓰기 위해 바라본 풍경과 걸딘 시간, 지웠다가 다시 쓴 문장들이 지나온 길이었다.

내가 지키려 한 것은 단지 3,601번째 글자가 아니었다.

그 한 글자 앞에 3,600자가 존재할 수 있게 했던 한 사람이었다.